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1.4(수)
			매 수	총 3매(본문 기준)
보도시점	○ 통신/방송/온라인: 1월 4일(수) 보도 ○ 신문: 4일(수)부터 게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문의>	기술가치창출원 행정운영팀장 양시정 산학협력센터 최봉근		042-350-2179, 010-2728-3556 042-350-6426, 010-3977-7245	
	홍보실	실장 민현숙	042-350-2299, 010-8815-9467	
		담당 김성민	042-350-2292, 010-5591-1504	

KAIST,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KAIST관 운영

- 2023년 1월 5일(목) ~ 1월 8일(일) 개최되는 CES 2023의 핵심 전시관 중 하나인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 전시자로 참가
- 교원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동문창업기업, 기술이전기업 등 유관기업 12개 사 혁신 기술 소개
- 플루이즈, 힐스엔지니어링 2개 사 “CES 2023 혁신상” 수상
- KAIST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글로벌 기술가치창출의 활로 마련 기대

KAIST(총장 이광형)가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이하 CES 2023)’에 참가한다.

KAIST는 전시 기간 중 단독 부스 운영을 통해 KAIST 유관 창업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KAIST는 지난 2019년, 5개 창업기업과 함께 CES 2019 에서 처음으로 독자 부스를 운영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CES 2020에서는 12개 사, CES 2022에서는 10개 사와 함께 CES에 참여한 바 있다. KAIST는 네 번째 참가하는 이번 CES 2023에서 12개의 교원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동문창업기업, 기술이전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KAIST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와의 협업을 통해 각 기업들에게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고, 동 전시회를 통해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가치 창출과 더불어 KAIST 우수기술 및 참가기업에 대한

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스베이거스 유레카 파크의 약 1,350ft² 넓이의 부지에 설치될 예정인 KAIST관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목록과 그 기술은 다음과 같다.

No.	기업명	전시 제품/기술
1	앙트리얼리티	어나더타운 (XR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	히츠	ONE 플랫폼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3	와이파워원	대용량 무선 충전 시스템 (전기차용 무선충전 시스템)
4	플루이즈	FLUID (신기술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 및 플랫폼)
5	힐스엔지니어링	인공지능 자율주행 Hologrambot (Hybrid SLAM 자율주행 기술)
6	아트와	자율주행 로봇 (수륙양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7	(주)아이디케이랩	THE OBTECT (4차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화학물질 누출 안전진단 솔루션)
8	(주)제이마이크로	모빌리티·건물용 스마트 글라스 (발열+안테나+정보 전달 기능 스마트 글라스)
9	페리지어어로스 페이스	BLUE WHALE 1.0 (2단으로 구성된 발사체 기술)
10	하바타	하바타 (AI 기술을 활용한 나만의 질환 명함 서비스 기술)
11	(주)모바힐	종합도로정보제공 플랫폼 (정확한 노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기술)
12	엔디디	타액 바이러스 센서 및 탁상 판독 기술 (1분만에 바이러스에 대해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

상기 12개 사는 XR·게이밍, AI/로봇, 차량·수송,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헬스케어, IoT 각 분야의 창업기업들이며, 세계 유수의 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계약, 투자유치 등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

이 중 플루이즈, 힐스엔지니어링 2개 사는 ‘CES 2023 혁신상’ 수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달성할 성과들이 더욱 기대가 된다.

KAIST 기술가치창출원 관계자는 “2023 KAIST관에서는 각 기업들을 위해 IR 피칭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KAIST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

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각 창업기업에서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를 이루어내길 바란다” 고 말했다.

(끝)